SBS '리멤버:아들의 전쟁' 남궁민

"비열·악독한 감정이입 힘들어"

재벌 3세 '악마' 연기 화제 … 연이은 악역에 "부담없어"

SBS TV 수목드라마 '리멤버 : 아들의 전쟁'에는 나쁜 사람이 참 많다. 재벌과 결탁해 진실을 저버리는 검사, 그와 손잡고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조작하는 형사, 살인 청부 의뢰에 응하는 조직폭력배, 금전적 회유에 넘어가는 변호사는 TV 앞에 앉은 우리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는 인물이 재벌 3세 남규만이다.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남자는 수틀리면 사람을 사정없이 매질한다. 자신의 앞길에 거치적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을 교사하고서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는다.

악마를 현현한 연기로 화제를 모으는 남규만 역의 남궁민을 8일 인터뷰했다.

남궁민은 시청자들의 칭찬에 대해 "다행히 제 실제 모습이 아닌 연기로 봐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전작(SBS TV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 연쇄살인마를 연기했던 남궁민에게도 남규만 역은 녹록지 않았다.

특히 초반에는 살기 가득한 대사를 외우면서 쌓인 스트레스로 몸까지 힘들었다. 데뷔 16년차인 남궁민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냄새를 보는 소녀' 권재희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남규만은 좀 더 현실에 실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설정 하에 캐릭터를 분석했어요. 정말 남규만의 감정에 그대로 이입해 대사를 소화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제 내면에서도 그걸(악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거부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힘들었어요."

많은 시청자가 남규만을 지난해 흥행한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한 조태오와 함께 거론한다. 둘은 재벌가 자제로 '인간말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남규만은 조태오와 달리 재벌 2세가 아니고 3세"라고 농담을 던진 남궁민은 "크게 보면 기본 설정은 비슷할 수 있으나 사건 디테일도 다르고 무엇보다 연기하는 사람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영화 '변호인'의 윤현호 작가가 '리멤버'에서 그리는 세상은 현실에 대한 은유로 읽힐 때가 많다.

'맷값 폭행'을 비롯해 간간이 보도되는 재벌가 자제들의 비뚤어진 행동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절로 떠오른다.

남궁민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면서 "다만 남규만 캐릭터를 현실감 있게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단역으로 연기를 시작한 남궁민은 2004년 KBS 1TV 일일극 '금쪽같은 내 새끼'로 주연을 꿰차면서 시청자들의 눈에 들었다.

특유의 매력적인 눈웃음으로 유명한 그는 한때 '리틀 배용준'으로 불리기도 했다.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 연기 변신을 꾀한 남궁민은 악독한 캐릭터를 연거푸 맡은 데 대해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남규만 캐릭터를 소화하는 일이 힘들었을 뿐, 악역을 연속으로 맡아서 힘든 점은 없어요. 또 두 캐릭터는 그 악함을 표출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시청자들에게 다른 연기를 보여주고 픈 욕심도 있었고요." /연합뉴스

영화 '그날의 분위기' 유연석

"질척한 농담하는 게 더 힘들어"

응답하라 1994 '칠봉이' 적극남 '재현' 으로 변신

더는 '응답하라 1994'의 칠봉이가 아니었다. 처음 본 여자에게 '오늘 웬만하면 그쪽이랑 자려구요'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얼굴 두꺼운 남자로 변신했다.

유연석은 8일 영화 '그날의 분위기'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그날의 분위기'는 사랑에 보수적인 여자와 적극적인 남자 사이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유연석은 KTX에서 처음 본 수정(문채원)이 마음에 들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재현 역을 연기했다.

그는 "야한 농담을 건네고 들이대는 캐릭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전에는 악역이나 짝사랑하는 역이 많았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이라 연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따귀 맞을 수 있는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도 혐오스럽지 않게 그려내는 것이 숙제였다."

그는 영화 촬영 때 분위기를 '비포 선라이즈'와 '연애의 목적'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전자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간의 낭만적인 사랑을 다룬 영화이고, 후자는 새로 만난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남자의 '질척거림'이 강하게 표현된 영화다.

유연석은 "상황은 '비포'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리려는 분위기나 제 생각에나 '연애의 목적'이 맞다고 봤다"며 "따귀를 맞을 수 있는 행동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하다 보니 캐릭터에 젖어가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아도 문채원씨에게 야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며 웃었다.

재현의 성격이 시나리오 초고에서는 현재보다 더 강했다고 했다.

유연석은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듣지 못한 대사들이 많은 점이 재미있었는데, 각색하는 과정에서 많이 가다듬어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제작진들과 회의를 거쳐 재현의 캐릭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요소를 넣었다고 했다.

영화 후반부에서 수정이 재현이 한 대사를 반복하는 장면이나, 비가 오는 정자에서 재현이 수정의 발목을 마사지하는 장면 등이 그의 아이디어라고.

이른바 '원 나잇'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처음 만나서 인사만 하거나 손을 잡고, 일주일 후에는 키스하고, 그런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커플의 성향에 따라, 사람의 성향에 따라, 연애 가치관에 따라 스킨십의 정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준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2013년 '응답하라 1994'에 칠봉이 역으로 출연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게 됐다. 유연석은 '응답하라 제작진으로부터 카메오 출연 요청이 있었냐'는 물음에 "아직 없었다"면서도 "연락이 오면 기꺼이 하겠다. 밤을 새워서라도"라며 응답하라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유연석은 현재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몸이 힘들지만 공연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한해에 한편, 두해에 한편 식으로 지속적으로 공연하고 싶다"며 "장르나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싶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0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FR
12	40 채널A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뉴스 45 국회인사 청문회
1	50 뉴스특급		00 출발 드림팀 2(재)	10 국회인사청문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2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00 2016 신년 기획 〈다시 호남을 말한다〉(재)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55 튼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안녕 자두야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 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 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5 힐링 캠프 500 人
12	40 동갑내기 여행하기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요리비전
06:10 EBS 인문학 특강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생활 보감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
13:05 지식채널e
13:10 프레임 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4:00 초등 1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5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3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캐니멀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발명이 팡팡!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낯선 시간으로의 초대, 요르단 1부 - 페트라〉
21:30 한국기행 〈영덕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부 블루로드를 따라서〉
21:50 EBS 다큐 프라임 〈위대한 로마 1부 황제들의 정치무대 콜로세움〉
22:45 달라졌어요
23:35 프레임 인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1일(음 12월 2일 壬辰)

子 48년생 조짐이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60년생 주력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느니라. 72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다. 84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리라. 행운의 숫자 : 11, 23

丑 49년생 허황된 것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알라. 61년생 진행 과정이 충실했다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깔끔해야 성사되리라. 73년생 관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할 수다. 85년생 미약해 보여도 큰 힘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5, 57

寅 50년생 지난 일에 얽매인다면 동력이 약화 되리라. 62년생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여 긴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74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빨리 청산하는 것이 옳다. 86년생 점진적으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4, 36

卯 51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63년생 활발하게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75년생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다. 87년생 가까운 이로 인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9, 76

辰 40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함이 유리하다. 52년생 모순점을 방치하지 말라. 64년생 주변의 변동으로 인해 혼란스럽겠다. 76년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88년생 약간만 신경 쓰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6, 40

巳 41년생 원님 덕에 나팔 불게 되리라. 53년생 구조를 개선해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65년생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이다. 77년생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89년생 지속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70, 98

午 42년생 무조건 따르다보면 선길후흉 하는 마당에 이르리라. 54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둔다. 66년생 지금 행한다면 흡족하지 않겠으니 후일을 기약하자. 78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8, 51

未 43년생 초석이 될 만한 계기를 마련하는 운로라 할 수 있겠다. 55년생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67년생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자. 79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7, 30

申 44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56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68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80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1, 52

酉 45년생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57년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도다. 69년생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 과감하게 차치해도 된다. 81년생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길함을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3, 20

戌 46년생 실리 위주로 판단해야 할 때이니라. 58년생 피땀 어린 노고 끝에 감미로운 기쁨이 있겠다. 70년생 몸조심이 제일이니 항상 안전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기하라. 82년생 상호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1, 54

亥 47년생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운이 따를 수 있느니라. 59년생 대체로 순류를 타게 되지만 변수도 보인다. 71년생 상부상조 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83년생 근본적인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65, 2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